

**정책연구위원 자료조사 해외출장보고서**  
**[더불어 민주당]**

2016. 7. .

# 1. 출장목적 및 개요

## 1. 출장목적

- 스페인 정세 및 주요정책 연구

## 2.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	김 [REDACTED]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	정 [REDACTED]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국장	김 [REDACTED]

## 3. 출장지역 및 기간

- 스페인 마드리드 및 바르셀로나
- 2016년 7월 7일(목) ~15일(금) <7박 9일>

## 4. 출장일정

일 자	주요 일정
7월7일(목)	○ 인천 → 스페인 마드리드(KE0913 12:45 출발. 마드리드 18:55 도착) ○ 스페인 대사관 고일권 무관 면담
8일(금)	○ 국회 및 왕궁 방문 ○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김기중 관장 면담
9일(토)	○ 프라도 미술관 방문 ○ 기아자동차 스페인 판매법인 김경현 법인장 면담
10일(일)	○ 마드리드 → 바르셀로나(UX2006. 15:10→16:30) ○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 홍진욱 공사참사관 면담
11일(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스페인 설성 위원 면담
12일(화)	○ 가우디 건축물 방문
13일(수)	○ 바르셀로나 → 마드리드(UX2057. 12:05→13:35)
14일(목)	○ 스페인 한국문화원 채수희 문화원장 면담 ○ 마드리드 → 인천(KE0914 12:15 출발)
15일(금)	○ 인천 도착(16:20)

## II. 스페인 정세 및 주요정책

### 1 최근 국내 정치 정세

#### 1. 총선 재실시 관련 동향

##### □ '15.12.20. 총선 이후 신정부 구성 실패

- 집권 국민당이 전체 350석 중 123석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나 과반 확보에 실패, 의회내 지지표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라호이 총리가 펠리페 6세 국왕의 총리 후보 추천을 거절하면서 '16.2월 국왕이 사회당 산체스 후보를 총리 후보로 지명

※ 스페인 헌법 규정에 따라 국왕은 의회 구성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의회에서 찬반 투표 시행

- '16.3.2. 및 3.4. 두 차례 실시된 총리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정당간 재협상 돌입
  - 사회당은 시민당과의 정부구성 협정 체결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사회당-시민당-포데모스당 3자협상 결렬로 진보연정 구상 결렬
  - 국민당은 국민당-사회당-시민당간의 대연정 지속 제안
- '16.5.2. 최종 협상시한 도과에 따라 의회 해산, 6.26(일) 총선 실시 결정

##### □ 정치적 세대교체 : 급진좌파 성향의 포데모스당과 중도를 표방하는 시민당 부상

- 경제회복에 대한 불안감 및 연이은 정치인들의 부패스캔들 파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계 불신이 확대되면서, 주재국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계에 대한 강한 분노가 기성 정당을 대체할 신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출되고 이들에 대한 지지율로 직접 반영
- 포데모스당과 시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각각 제3, 4당을 차지하며 합계 득표율 34.6%를 기록함으로써 스페인 양당제의 붕괴를 이끌어 내고 4당 구도를 형성하며 정치적 세대교체에 성공

##### □ '16.6월 총선 관련 여론조사 현황

- '16.4월 Metroscopia 여론조사기관은 국민당(PP) 29%, 포데모스연합(Unidos Podemos) 20.8%, 사회당(PSOE) 20.1%, 시민당(Ciudadanos) 17.7%의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16.5월 CIS 여론조사기관 또한 국민당

27.4%, 포데모스연합 23.1%, 사회당 21.6%, 시민당 15.6%의 지지율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한 바, 급진좌파간 연정이 제1야당인 중도좌파의 사회당을 제치고 스페인 제2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포데모스당(Podemos)과 좌파연합(Izquierda Unida)은 연합을 통해 “Unidos Podemos” 연정으로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정

- 국민당 지지율은 지난 총선 이래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당과의 연정을 통해 과반 의석을 선점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사회당 지지율은 총리후보 신임투표에서 사회당 산체스 후보가 두 차례 부결된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

## 2. 까탈루냐 분리독립 동향

- '15.9월 실시된 까탈루냐 주의회 선거에서 분리주의 정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 까탈루냐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CDC당과 ERC당의 연합인 Junts pel Si당이 135석 중 62석을 확보하는 한편, 또 다른 분리독립 성향의 CUP당이 10석을 확보함으로써 분리주의 정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였으나, 합계 득표율은 48%에 불과, 과반을 넘지 못함으로써 분리독립 추진의 정당성 관련 논란 야기
- '16.1월 분리주의 정당의 지지를 통해 Junts pel Si의 Puigdemont 후보가 까탈루냐 주지사로 선출
  - 까탈루냐 신정부는 Mas 전 주지사의 분리독립 로드맵을 계승, 향후 18개월 이내 까탈루냐 임시헌법 제정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일방적 독립선언'을 발표하겠다고 표명

## 2 최근 경제 동향

### 1. 개관

#### □ 안정적 경기회복 전망

- '15년 3.2%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증가, 세금인하,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소비, 투자 증가 및 경제성장 선순환 기대
- 스페인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평균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

### <EU 집행위원회 경제 전망(2014-2016)>

	실질 GDP (%)			인플레이션 (%)			실업률 (%)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영국	2.8	2.6	2.4	1.5	0.4	1.6	6.1	5.4	5.3
그리스	0.8	0.5	2.9	-1.4	-1.5	0.8	26.5	25.6	23.2
스페인	1.4	2.8	2.6	-0.2	-0.6	1.1	24.5	22.4	20.5
독일	1.6	1.9	2.0	0.8	0.3	1.8	5.0	4.6	4.4
유로존	0.8	1.3	1.9	0.4	-0.1	1.3	11.6	11.2	10.6
프랑스	0.4	1.1	1.7	0.6	0.0	1.0	10.3	10.3	10.0
이탈리아	-0.4	0.6	1.4	0.2	0.2	1.8	12.7	12.4	12.4

자료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대외무역 동향

- '14년 스페인 수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00억 유로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국가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회복, 가계대출 확대 등 내수 회복으로 인해 수입 또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무역적자는 53.4% 확대
  - 수출 증가는 △달러 대비 유로가치 하락으로 인한 EU 역외 수출 확대, △생산성 제고, 임금억제정책, 가격조정으로 인한 스페인의 국가경쟁력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
- '15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2,502억 유로를 기록, 2014년의 기록을 갱신하며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갔으며, '14년 수입 급증으로 인해 증대된 무역적자는 2015년 수출 증가에 힘입어 다소 축소
  - ※ 주요 수출 품목은 자본재(20.1%), 자동차(17.0%), 식료품·담배(16.2%), 화학제품(14.4%), 반제품(10.5%), 소비재(9.7%)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자본재(20.4%), 화학제품(16.0%), 에너지(14.1%), 자동차(13.1%) 등
  - ※ 스페인 교역은 EU 역내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바, 2015년의 경우 수출의 64.8%, 수입의 56.0%가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교역으로 발생

#### <스페인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GDP성장률 (%)	-0.2	0.1	-1.6	-1.2	1.4
평균 실업률(%)	20.33	22.85	26.02	26.03	23.70
물가 상승률(%)	1.8	3.2	2.4	1.4	-0.2
산업생산 증감률	0.9	-1.8	-5.9	-1.7	1.5
환율(USD/유로, end of period)	0.75	0.77	0.76	0.75	0.82
수출(억 유로)	1,863	2,152	2,261	2,342	2,400
수입(억 유로)	2,401	2,631	2,534	2,502	2,645
무역수지(억 유로)	-538	-479	-273	-160	-244
1인당 GDP(달러)	30,113	31,563	28,670	29,907	30,278
이자율(%)	1.251	1.504	1.937	0.543	0.329
GDP대비 정부재정적자(%) (금융구제비용 포함된 수치)	-9.7	-9.6	-10.8	-6.8	-5.8
GDP대비 정부부채(%)	61.7	70.5	86	92.1	97.6

자료원 : EU Committee,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중앙은행, IMF

## 2. 스페인 정부의 경제·사회 구조개혁 동향

### □ 라호이 정부의 긴축정책

- '11.11월 조기총선을 통해 집권한 보수 국민당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 적자 통제, 중앙정부 재정 긴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금융시장 구조 조정 등 긴축·개혁 정책 지속 추진
  - 라호이 총리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 : ① 재정건전화 ② 구조개혁 ③ 유럽차원의 개혁 ④ 금융·조세·정치·경제통합 등 강력한 유럽통합 ⑤ EU내 신용경색 및 유동성 문제 해결 등
-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 및 구조조정에 힘입어 '13.12월 EU 은행권 구제 금융 졸업, '13년 무역수지 흑자 전환, '14년 플러스 성장 등 경제회복 국면에 돌입한 바, 스페인 정부의 개혁 로드맵이 파기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주요 경제 개혁

- (긴축재정정책) '10~'11년간 150억 유로 규모로 긴축재정정책을 추진 하여 '10년 GDP 대비 재정적자폭을 9.3%로, '11년 6%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 추진
  - ※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건전화(2013년까지 GDP대비 1.1%로),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등 공공부문 지출 억제 및 부가가치세(2% 인상), 자본이득세(1%) 인상, 세금환급 폐지 등 세수확대 병행 추진
- (조세개혁)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세 인상 및 세금 감면 혜택 폐지 등 세금 인상 정책 추진
  - ※ 부가가치세 인상(기본세율 18%→21%, 할인세율 8%→10% 등), 개인소득세 인하(과세표준 최대 52%→45%, 최저 24.75%→19%), 환경세와 유류세 등 특별세 인상,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중단 등 개혁
- (노동개혁) 스페인의 노동시장은 ①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분화, ② 임금의 물가연동제, ③ 중앙노조에 의한 단체 임금교섭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12.2월 노동개혁 실시
  -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 기업의 해고비용 부담 축소, 신규 정규직 고용계약 촉진, 집단임금협약체계 개편 등
- (금융개혁) '12.6월 스페인 정부는 금융기관 자본확충을 위한 은행권 구제금융을 유로그룹에 공식 신청, 413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 및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13.12월 EU 구제금융 졸업

- (연금개혁) '13.1.1일부로 연금제도 개혁을 적용, △ 2012년 65세였던 퇴직 정년은 2013년부터 매년 1~2개월씩 점진적으로 할증되어 2027년부터 67세로 유지, △ 연금수령액 산정 기준도 매해 1년씩 증가, 기존의 정년 이전 15년에서 2022년부터 정년 이전 25년으로 확대

### 3 대외 정책

#### 1. 기본방향

- 스페인은 객관적인 경제력, 지정학적 잠재력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연성권력 등에 비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이 간격을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대외정책 과제로 제시
  - ※ 2014년 국책연구소인 '왕립 엘까노 국제전략연구소'는 국가핵심목표로 △EU 통합, △민주화 진전, △안보, △국가경쟁력 제고, △국제적 책임 및 영향력 증대로 정의
- 2015-2016년 임기 유엔 비상임이사국이자 1540 비확산위원회, 1737 이란 제재위원회, 1718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국제평화, 민주화운동 및 인권문제에 능동적 기여(국제평화임무에 병력지원 등)

#### 2. 對주요지역 외교정책

- (EU) 스페인은 과거 EU 가입과 함께 고속 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親 EU적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통합의 가속을 위해 EU내 5대 강국으로서 역할 및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지정
  - 스페인은 EU와의 통합 강화가 지역 정세 안정 및 경제 번영을 가져온다는 기본인식 아래, EU와의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Schengen 조약, Nice 조약, Euro 화폐 단일화, EU 헌법 승인 등)하고, EU의 동구권 확대에도 적극 지지한다는 대외정책 목표 견지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포르투갈 등 중소국과의 관계에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
  - EU의 대외정책관련 스페인은 역사·문화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중해연안 국가들과 EU간 협력에 구심적 역할 담당

□ (마그레브·중동·아프리카) 스페인은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자연적 연결고리'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EU내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국인 모로코와의 관계 강화, 지중해 내 다자기구 협력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사하라 이남 국가와의 경제관계가 증가에도 주목

※ 펠리페 6세 국왕 즉위 이후 바티칸, 포르투갈에 이어 세 번째로 모로코 공식 방문

○ 2015-2016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리비아 내 반테러에 관한 결의안 2214호, 리비아 해안에서 활동하는 불법이민알선조직에 의한 피해자 및 이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 2240호 및 리비아 평화협정에 관한 결의안 2259호 채택 적극 지지

- 한편, 뉴질랜드, 요르단과 함께 시리아 분쟁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안보리 역할을 강조,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결의안 2258호 채택 및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에 기여

□ (중남미) 언어, 역사, 문화적 연고를 바탕으로 갖는 중남미 지역과는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체 등을 통한 이른바 '가족외교(Diplomacia familiar)'를 추구하면서도 중남미 국가 각각의 특색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존에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브라질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

○ 1980년대 이후 정치, 사회 분야뿐 아니라 중남미와의 경제 협력도 매우 중요해진 바, 현재 스페인 기업은 언어, 문화적 동질성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 인프라,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중소기업의 대중남미 진출도 활발히 진행

○ 스페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대중남미 투자국으로, 2007년 735억 유로(전체 투자액의 25.2%)였던 스페인의 대 중남미 투자는 2012년 1,257억 유로로 확대되며 스페인 총 투자액의 32.2%를 차지하게 된 바, 중남미는 스페인의 주요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입지 유지

- 금융(Santander, BBVA), 통신(Telefonica), 에너지(Iberdrola, Repsol), 건설(FCC, OHL) 시장에서 우월적 시장지배율 보유

- 스페인 금융기업인 Santander와 BBVA는 보유자산 기준 중남미 해외금융기업 1, 2위를 차지(Santander Brasil 및 BBVA Bancomer)

□ (북미) 스페인과 미국은 파트너국이자 동맹국으로서 NATO 틀 내에서 안보·국방 분야 및 대테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유지



- ※ '14.1월 라호이 총리 미국 방문 및 미-스페인 정상회담 개최
- ※ '15.9월 펠리페 6세 신임국왕 내외 미국 공식 방문 ('14.9월 유엔총회 계기 미국 방문)
- ※ '15.10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스페인 방문

□ (아시아·태평양) 스페인의 對 아시아 외교는 아직까지 경제·통상 관계 증진에 초점을 두는 한편, 아시아 지역 내 스페인 국가이미지 제고 및 스페인어 확산 노력

- ※ 2015년 스페인의 對 아태지역 주요 정책 : △아태지역 주요국 내 스페인의 위상 확대 △상호이해 증진 △교역 및 상호 투자 촉진 △아태지역 내 전략적 주체로서의 EU의 역할 강화 및 △중남미-아시아-유럽의 삼각협력 촉진

### 3.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

- (Brexit) 스페인 정부는 EU 통합 강화의 의미에서 영국의 EU 내 잔류를 희망
  - (난민 문제) EU의 국가별 난민 수용 쿼터제 도입과 관련, 스페인 정부는 동 쿼터제가 요구하는 강제적 할당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각 회원국의 자발적인 수용 규모 결정을 촉구
    - ※ 스페인 정부는 동 쿼터제가 국경 감시 등 불법이민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기존 조치나 이민자의 사회통합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
  - 지난 4월 EU 집행위는 '15.9월 EU 쿼터제 도입 이래 기존 할당 수치인 19,219명 중 0.1%에 불과한 18명만을 수용한 스페인 정부의 의지 결여를 지적하며 난민수용기준을 유연화할 것을 촉구
  - 한편, 중앙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까탈루냐 등 주요 주정부는 난민 수용 의지를 표명하며 난민 수용 규모 확대를 요구
- (이란 핵문제) 스페인은 유엔 1540 비확산위원회, 1737 이란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이란 핵협상 실현 및 '15.7월 이란 핵프로그램 합의에 관한 결의안 2231호 채택에 적극 기여
- (시리아 사태) 시리아 분쟁 관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안보리 역할을 강조해온 스페인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결의안 2258호 채택 및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을 적극 지지
- (대테러) 스페인은 유엔의 대테러 전략 추진을 위해 유엔 대테러 실행대책 위원회(CTITF), 특히 테러희생자지원 부문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EU 차원에서 국제테러 분석 태스크포스(COTER), 대테러 태스크포스, 대테러 특별조치(CP931 WP) 태스크포스 등에 참여

- EU 차원의 견고한 안보방위정책 수립을 촉구해온 스페인은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출범에 있어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반도 및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군사적 지원도 적극 제공
  - 스페인은 2015년 EU-남부지중해간 대테러 협력을 위한 외교장관회의 및 유엔 대테러위원회(CTC) 특별회의를 개최, 지하디스트 테러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외국인 테러전투원 방지를 위한 '마드리드 이행원칙'을 채택하는 한편, 루마니아와 함께 국제테러재판소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 (우크라이나 사태) 스페인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독립 선언이나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및 국제법을 존중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하고, 사법 및 경찰제도 강화, 지방분권 과정에 대한 자문, EU와의 화해를 위해 러시아에 협력을 제공할 것을 제안
-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정치·경제적 이유에서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바, 러시아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분쟁 등 국제 문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페인 대외무역부문에 있어 중요한 위치 차지
  - EU의 러시아 제재 및 러시아의 EU 농산물 금수 조치에 의한 가장 큰 희생국으로서 특히 농산물 및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스페인은 EU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는 다소 회의적 입장
    - ※ 2014년 EU의 러시아 제재 및 그에 따른 러시아의 EU 농산물 금수 조치로 인해 스페인 농산물 수출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러시아는 스페인의 수출대상국 17위, 수입대상국 10위를 기록(120억 유로)하는 한편, 2013년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러시아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스페인 관광부문의 주요 시장으로 성장

## 4 문화·교육 정책

### □ 문화정책

- 스페인 정부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브랜드'라는 인식 하에 국가이미지 제고에 역점
  - 스페인어 보급 및 이를 통한 자국 문화 전파를 중점 추진하면서, 공공외교 성과가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는 방향 적극 모색 중
- 스페인 국가이미지 개선 촉진, 정기적 인지도 측정 및 객관적 지표 산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국가이미지 홍보 관련 대외활동 계획 및 추진 등을 위해 '스페인 국가브랜드위원회(Marca España)' 운영
  - 주무부처는 외교협력부이나 사업 대상 및 분야에 따라 공공외교 시행 기관 세분화
    - ※ 국제교류재단(대륙별 공공외교 증진), 세르반테스 문화원(스페인어 보급 및 공인인증시험 실시), 문화진흥공사(공연, 전시, 영화, 음악, 강연 등 문화예술산업) 등

## □ 교육 정책

- 영유아 과정(0-6세) : 자발적 선택
  - 1단계(0-3세) / 2단계(3-6세)로 나뉘며 2단계는 무상교육
  - ※ 현재 실질적으로 3-6세 유아 약 100%가 유치원 보육 수혜중
- 초등 과정(6-12세) : 무상 의무
- 중등 과정(12-16세) : 무상 의무
  - 본인 및 보호자 희망시 18세까지 최대 2년 연장 가능
  - 중등 과정 졸업자는 ①대학진학 준비 과정 진학, ②중등 직업교육 과정 진학, ③취업 중 진로 선택
- 대학진학 준비 과정(16-18세) : 자발적 선택
- 고등 과정(18세 이후) : 자발적 선택

[현장 사진]

○ 국회방문



○ 프라도 미술관 방문



○ 왕궁 방문



○ 마드리드 축구 경기장 방문

